

문화의 시대라 한다. 우리에게 있어 문화라 하면 세상에 자랑할 것이 있다. 바로 불교문화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 불교문화처럼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또 그에 걸 맞는 화려한 성과를 낸 부분이 있을까. 그 깊이와 넓이, 이를 당할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들에게 불교문화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거의 무한대와 같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불교문화하면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만 간주하려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

불교는 과연 과거형인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일렁거리는 현재형과는 무관한 것인가. 나는 한산한 불교계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키워드는 '감동'이다. 감동을 주어야 한다. 감동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감동을 찾아 헤매고 있다. 하여 감동이 좀 있다하면 몇 십만 아니 몇 백만 명이라도 모여든다. 그것은 제 발로, 돈까지 들고 찾아온다. 현대인은 감동에 굶주려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 해도 감동과 함께 주지 않으면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불교, 좋다.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불교라 해도 감동과 함께 건네지 않으면 반기지 않는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다. 날로 감동이 메달라 가니 감동이 더욱 그리워지



불자 세상보기

윤 범 도
경원대 교수 · 미술평론가

예술로 감동시켜 포교하자

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동은 어떻게 주는가.

이미 해답은 나와 있다. 문화예술이다. 예술은 감동을 생명으로 존재한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라 해도 딱딱한 밥만만 가지로는 젊은 세대를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예술이라는 그릇에 담아 불법을 제공한다. 게다가 감동까지 듬뿍 담아 건네준다면, 사람들은 구름따처럼 물러갈 것이다. 그것이 세상이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술분야를 활용하지 않는가.

불교는 예술 창작의 보고(寶庫)이다. 다양한 장르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

다. 한 번 상상이나 해보자. 잘 나가는 영화나 소설 한 편이 불교이야기였다고 하자. 그 효과는 어떠할까. 쉬운 말로 포교도 하도 돈도 벌 수 있다. 그리고 민족의 역사에 찬란한 금자탑을 쌓게 된다.

감동은 예술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 효과가 배가된다. 나는 우리 시대의 예술, 우리 시대의 불교예술 작품에 목이 마르다. 감동을 한마디 안을 영화, 문학, 연극, 음악, 무용, 미술작품과 같은 창작과 만나고 싶다. 왜 안 되는가. 불교의 세계는 예술창작의 원천이다. 누군가의 촉매역할이 절실하다. 우리 시대의 불교적 걸작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를 해야 한다.

여기서 중단의 지도자 혹은 사부대중에게 제언을 하고 싶다. 중단 안에 불교문제진흥원 같은 기구를 만들자. 그것의 위상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리고 기금과 인재를 모으자. 각 장르의 전문가들로부터 중지를 얻자. 여건이 되는 분야부터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조금씩 성공물을 재확할 필요는 없다. 씨를 뿌리다 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언젠가 세계를 울릴 예술 작품이 하나 둘씩 나올 때, 불교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게 될 것이다. 나는 한국불교의 중흥은 바로 예술중흥에서 비롯될 것으로 확신한다.

더 두고 건물 짓는 불사에서 이제는 예술불사(佛事)를 실현하자. 영화불사, 소설불사... 왜 안 되는가. 사람을 키워야 한다. 같은 노력이면 우선 예술가를 키우는 것이 효과 만점이다. 포교가 될 것이겠는가.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자. 예술작품을 안기자. 하여 불교문제진흥원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는 중단이 그리워진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현대계의 중점사업은 불교예술의 진흥이다. 예술가를 키우자.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행복 바람이 불면서 '행복'이 삶의 핵심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과 테러로 지구촌의 긴장이 높아지고 나라의 경제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 '행복'에 이르는 길은 아직 멀고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1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전국 사찰의 신도회, 청년회, 수행단체, 직장기능단체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자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재가불자들의 평균 행복지수는 63.9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3년 호서대 김명소 교수팀의 조사에 의해 밝혀진 한국인의 평균 행복지수 57.7점 보다 제법 높은 수치이다.

이 두 수치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행복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등급 분류 방식이 같고, 평균 행복지수와 남녀별 행복지수의 편차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수치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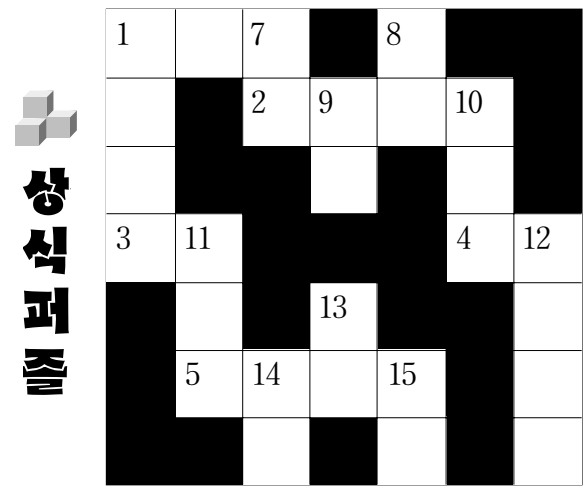
100% 행복을 향하여

이번 조사 결과는 '불교'가 사람들의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불교를 믿음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불자들이 85.6%에 이른다는 사실도 주목해 볼 점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출가한 스님들의 행복지수, 나아가 다른 종교인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다.

또한 이번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일반인들과 불자들의 행복지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번 조사 결과로 불교계나 불자들이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교는 고통의 소멸, 즉 열반을 가르치는 희망의 종교다. 그러나 열반은 현실 저 너머에 있지 않다. 지금 이곳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목표다. <숫타니파타>에서 "나는 이미 밭도 지었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내 몸뚱이는 이렇고 밭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신이여, 비를 뿌려라. 비를 뿌려 주시라"라는 목동나라이의 말은 율미해법 지하다. 지금은 우리 불자들이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다. ■ 박경준(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창간 10주년 기념 경품을 드립니다



가로 1. 현대불교의 사시 가운데 하나, 생활화·○○ ○·세계화 2. 현대불교가 만든 대표적인 불교 포털로 부다(佛徒)·피(彼)·아(我)의 뜻을 가진 사이트 이름 3.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 4. 도움이 되도록 이미지함 5. 현대불교의 인터넷 신문(www.buddhanews.com)

세로 1. 1994년 10월 15일 창간과 언론을 통한 정보사회 구현과 포교에 매진함으로써 2,000만 불자들의 긍지를 대변하고 있는 불교계 대표신문 7. 젊어서 나무로 불태는 일을 맡아하는 사람 8. 부처나 보살이 지비를 배틀어 중생에게 힘을 줌 9. 들은 것이 많음, 아난존자를 일컬어 ○○제일이라고 함 10. 수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많은 수. 또는 그런 시간 11. 양털로 만든 붓 12. 조계사 옆에 위치한 국내 최대규모 매장의 불교전문서점. 경전 처음에 놓인 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에서 이름을 따옴 13. 중 쪽대기 부분의 장식 14. 불에 태운다는 뜻으로 화장을 일컫는 말 15.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기념경품을 드립니다. 정답은 10월 17일까지 팩스와 이메일로 받습니다. (담당: 박익순 기자, 성명·주소·연락처 기재요함) Fax : 02-737-0698 E-mail : info@buddhapia.com

독자투고 불교방송은 자비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저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서 이동하는 장애인입니다. 제 직업은 방송작가이고 작은 힘이나마 뜻있는 일을 하고 싶어 장애인 문예지 <숫대문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전부이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제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그 불법을 따르고 있는 불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불교방송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인 '그리운 등불 하나'에 애정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제가 장애인이고 불자이기 때문인입니다.

1990년 불교방송이 개국한 이래 지금까지 '그리운 등불 하나'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10분~11시에는 불교방송의 기치인 소의 계층과의 '나누는 기쁨'을 성실히 실천해오고 있는데 14년의 역사가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폐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나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장애인 포교가 뒤떨어져 있는데, 불교방송에서조차 장애인 프로그램을 없앤다는 것은 장애인 포교라는 종교적인 기능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장애인의 알 권리와 참여의 권리를 짓밟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불교방송은 불자가 주인이지 몇몇 관리자가 청취율을 빌미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원이 아닙니다. 방송 매체가 나날이 불어나고 있는데 종교 방송을 인기에 편승하는 일반 방송으로 바꾼다는 것은 방송의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불교방송은 자비의 소리를 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불교방송에 '그리운 등불 하나' 같은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 개인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리자가 청취율을 빌미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원이 아닙니다.

방송 매체가 나날이 불어나고 있는데 종교 방송을 인기에 편승하는 일반 방송으로 바꾼다는 것은 방송의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불교방송은 자비의 소리를 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불교방송에 '그리운 등불 하나' 같은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 개인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사장님께서 불교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파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이해하며 불교방송을 오랫동안 지켜온 PD들이 불교방송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산산 조각이 나고 10월 10일 마지막 방송을 해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하시어 지

금까지 소외된 곳을 구석 구석 밝혀 주고 있는데, 불

장애인 대상 프로 '그리운 등불 하나' 폐지해야 했다?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교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기에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운 등불 하나'는 장애인 사이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타종교 방송국에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신설·폐지를 반복하는 동안 불교방송은 연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장애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지력을 과시하며 장애인 복지계에서 그 참여도가 점점 넓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그리운 등불 하나'를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을 앞두고 폐지시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지

교방송이 공명심에 장애인의 등불을 꺼뜨린 것은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저는 지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물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극복의 삶을 소개하는 '그리운 등불 하나'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져 오는 것이 느껴졌다는 청취자들의 소감이 많지 않았던가요?

■ 박귀희(숫대문학 발행인·방송작가)



'연대'만평 창간 10주년 심민섭

初發心으로...

이것이 명품이다! 우리 몸속의 새로운 활력 산삼의 신비가 그대로...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국내산 토종 오가피 추출액에 산삼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의 체질에 알맞게 개발하였으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검사를 거쳐 정성스럽게 제조한 제품입니다.

산삼배양근 함유

심마니 토종 오가피

- 심마니 토종오가피 출시기념 고객사은행사 -

★심마니 토종오가피 공장 및 농장견학회★
매주 금요일 오후2시 구경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주세요.

상담문의/무료자료배송 02)447-9114

주원농F&B HYUNPUNG F&B CO., LTD.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축하합니다

DX-707 스탠드 마이크와 범당 전용高音質 스피커 YM-520을 함께 구입하시는 사찰에 10만원 할인 및 무료설치와

고성능 무선 마이크 1셋 무료보시 합니다!

11월 15일까지 선착순 30대에 한합니다

주지스님 전용 DX-707 스탠드 마이크

염불소리, 목탁소리 요령 소리를 마이크에서 자유롭게 조절

범당전용 스피커 YM-520

스피커 1(2개)조 : 500,000원

DX-707 스탠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계좌번호 : 우리은행 566-436589-02-001
예금주 : 김문화
(50% 입금된 사찰 순으로 설치 해 드립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 김문화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원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TEL : 02)2697-9976, 2605-3235
FAX : 02)2601-8284